

與 세종시 수정 '집안싸움' 확산

세종시 건설 수정을 둘러싸고 여권의 고위 당정회의에서도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의 갈등이 표출되는 등 여권의 '집안싸움'이 확산되고 있다.

정운찬 총리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부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11일 삼정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수정 논란과 관련, "이 문제를 발제하는데 당에 미리 상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그러나 세종시가 현재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나라에도, 충청지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길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세종시 문제는 국가대계를 위해 중요한 문제"라면서 "하지만 충청도민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며, 충청도민이 환영할 만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세종시를 둘러싼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종적인 안이 나올 때까지 정부 관계자 모두 신중할 자세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당정 수뇌부의 원론적인 발언이 끝나자 곧바로 친박계로 분류되는 송광호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이 한두 사람의 소신과 정치 철학 때문에 한꺼번에 함몰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송 최고위원은 이어 "총리께서 하신 말씀 중에 원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백년대계 기약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자족도시 문제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친박 성향의 김성호 정책위의장도



11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나라당 안상수(왼쪽) 원내대표가 세종시에 대한 쓴소리를 마친 뒤 음료를 마시자 뒤이어 정운찬(가운데) 국무총리와 윤종현 기획재정부장관도 음료를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鄭총리 "계획대로 진행뎐 아무에게 도움 안돼" 친박계 "자족도시 문제 법 개정 않고도 가능"

"세종시에 관한 대안은 국민과 충청도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눈에 띄는 혜택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친이계는 세종시 수정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만약 어제 같은 서해교전상황이 수도가 분할된 이후에 발생했다면 얼마나 대처가 늦어졌겠느냐"며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은 "다음 선

거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 역시 중요하다"며 "정부가 왜 편안한 길을 놓고 왜 험한 길을 가려고 하는지도 헤아려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회의 이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친박계의 불참선언으로 반쪽기구 위기에 처한 여론수렴 특위를 놓고 지도부의 해명이 이어졌다.

정 대표는 "세종시 특위는 수정안을 만들기 위한 기구가 아니고, 원안에 찬성하는 분들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정의화 특위위원장은 "특위는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고 조인하는 기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친박 중진들은 세종시 갈등을 우려하며 속도조절을 제시했다.

이경재 의원은 "요즘 본회의장에 있으면 조마조마하다. 서로 자제하고 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이해봉 의원은 "정부안이 나올때까지 모두 입을 닫고 서로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평행선 달린 박근혜-주호영 회동

주 장관 "대안 만들테니 기다려 달라" 박 전대표 "입장 밝혔고 할말 다했다"

세종시 축소 논란으로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주호영 특임장관이 최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정부 입장을 설명했으나 박 전 대표는 원안고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장관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표와 만남을 인정한 뒤 박 전 대표에게 '개선안 만들 테니 참고 기다려 달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했으나 박 전 대표에 대해 "그건 아니다. (박 전 대표와 만남이) 대통령 지시도 아니고 (메시지를) 전한 적도 없다"라고 부인했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

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며칠 전 (주 장관으로부터) 만났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와서 국회에서 잠깐 만났다"며 "(주 장관이) '세종시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내년 초까지 대안을 만들려고 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주 장관의 말을 들은 뒤 "제 입장은 이미 밝혔고, 할 말은 이미 다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만남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정체 메시지'를 자임하고 있는 주 장관이 박 전 대표에게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는 이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면서 이해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주 장관이 대통령과 관련성을 부인했으나 친이계와 친박계 간 갈등이 워낙 심한 상황이라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 내부의 분석이다. 하지만, 이 만남에서도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어떤 진전도 보지 못함에 따라 세종시를 둘러싼 양 계파 간 격돌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與 세종시 내홍' 예의주시

민주당이 세종시 공방에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 모양새다. 세종시 수정 문제를 둘러싼 여권내 갈등을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실제 10일과 11일 이틀동안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세종시와 관련한 공개 발언은 일절 나오지 않았다. 대정

부질문에서도 여당 의원들끼리 세종시 문제를 놓고 치고 받는 데도 민주당은 4대강 사업종단 공세에 전력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신종플루 단체 집회를 실시한 신당초등학교와 거점 병원인 국립의료원을 잇따라 찾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당분간 강 건너 불구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 나온다. 여당의 내홍 국면에 개어드는 것보다 여권의 자중지란을 관망하고, 이에 따른 반사이익을 챙기면서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게 낫다는 판단인 것이다.

그 속에는 "여당이 깨지지 않는 한 세종시 수정은 안될 것"이라는 분석이 깔려 있다.

/연합뉴스

"투자·고용장려세 도입 성장잠재력 높여야"

강운태 의원 법개정안 발의

민주당 강운태 의원(광주 남)은 11일 경제의 근간이 되는 투자와 고용 등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근로·고용장려세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내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은 투자금액에 3%(지방은 5%)를 그리고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에 5%(지방은 10%)를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도록 했고, 올부터 시행 중에 있는 근로소득장려세(EITC)의 적용대상 범위를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자영업자)와 농업소득자까지 확

대 적용하도록 했다.

또 업종별·매출액별로 표준인력을 산출하고, 표준인력 이상으로 고용한 업체

에 대하여는 법인세나 소득세의 인건비 산정 시에 초과고용 인력부분에 대해 실제 인건비의 1.5배(지방은 2배)를 인정하도록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7-9급 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고시학원에 있다! www.hanbitgosi.co.kr

2010년 11월 11일 신바람 나는 공무원 합격준비는 지금부터 한빛에서

단과 합격특강 79급 종합반 하루9시간 강의 행정직/세무직/검찰직/법원직/소방직/교육행정직/사회복지직/농업직/기술직/경찰직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올야간반** **첫개강 > 12월 1일 18:00~22:50** = 강의시간 = (전라북도 한정)

한빛고시학원 대표브랜드 - **한빛고시학원** (광주 북구 광영동 1234-0234)

급매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46-2 백악관 예식장

- 대지면적 : 1770㎡(535평)
- 지역 : 준주거지역
- 건축면적

| 구분 | 면적(㎡) | 용도 |
|------|-------------|---------|
| 지하1층 | 1147.07 | 주차장 |
| 1층 | 584.2 | 휴게음식점 외 |
| 2층 | 584.2 | 예식장 |
| 3층 | 493.65 | 예식장 |
| 4층 | 493.65 | 식당 |
| 5층 | 493.65 | 식당 |
| 계 | 3796(1148평) | |

- 추천용도 - 예식장, 병원, 교회, 학원, 대형마트 사무나, 체육시설 등
- 매매가 : 23억(대출금 13억 포함)

상담 전화 ☎ 011-625-8153

부동산투자클럽

T. 011-641-0925, (062) 515-4985

- ▶ 펜션부지(광주호상류-가든식당, 과수원, 임야) 34,830㎡ 매매가 3.3㎡당 12만원
- 농지(무안군 운남면) 23,600㎡(바닷가,계획관리지역) - 매매가 3.3㎡당 20만원
- ▶ 대지(신촌동) 764㎡(버스승강장, 전철역 5분거리) 매매가 ㎡당 36만원(원룸, 빌라, 물류창고적합)
- 고시텔(전대후문 체육공원 인근) 대 282㎡/건 560㎡ - (최근준공) 1652(1652㎡)대 23만원/㎡ 매매가 8억5천
- ▶ 대지(북구 신안동) 402㎡(물류창고적합) 매매가 3.3㎡당 150만원
- 상가주택(오치동 대단지 아파트 입구) - 대 496㎡/건 1487㎡ (6층건물) 매매가 17억
- ▶ 임야(남평읍 우산리) 16,811㎡(계획관리지역) 매매가 4억5천
- 농지(충효동-광주호상류)전 1,927㎡ - 각종 유실수 100여 주식제, 매매가 ㎡당 9만5천
- ▶ 가든식당(월출산국립공원 입구) 7,665㎡ 식당, 숙박업, 단란주점, 체육시설, 농장 모든시설 허가 필 - 매매가 3.3㎡ 당 32만원

경매부동산상당, 대출상당, 각종부동산투자상당

부동산투자클럽 공인중개사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70-3(용봉동 하이마트 옆)

(공시 RIS-001) **전남대학교 신 에너지 RIS 사업단 2009년 기업지원사업과제 공모**

전남대학교 신 에너지 RIS 사업단은 지식경제부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으로 "신 에너지 소재·부품 기업지원 지역혁신 역량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내 신에너지 관련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사업화 및 판매회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1. 지원분야**
가. 태양 에너지 분야 (셀, 전지 모듈, 컨버터, 추적장치 등)
나. 수소 에너지 분야
다. 기타 신 에너지 관련 분야
라. 소재·부품 분야에서 기업의 생산력 및 매출에 도움이 되는 분야
* 관련기업 컨소시엄 구성 시 평가 가산점 부여
- 2. 지원사업**
제품개발사업과제, 예로 기술지원, 시제품제작지원, 분석지원, 국내외 인증획득 지원, 국내외 전시회 지원 등
- 3. 지원기간**
2009년 11월 ~ 2010년 04월
- 4. 사업비**
지원사업별로 평가 후 차등 지원 (사업종류 후 기술료 납부)
- 5. 신청기간**
가. 1차 : 2009년 11월 09일 ~ 2009년 11월 18일 18:00 까지
나. 2차 : 기업지원 사업비 소진 시까지
- 6. 신청자격**
광주 지역내 신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 7. 제출서류**
지원신청서(디스크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포함), 참여기업 협약서, 견적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등
- 8. 제출방법 및 문의처**
가. 제출방법 : 사업단 홈페이지(http://juris.chonnam.ac.kr) 공지사항의 지원신청서 서식에 의해 우편(접수마감일 도착일에 한함) E-mail(juris@chonnam.ac.kr) 또는 방문 신청
나. 접수처 : (우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신학협력공과관 306호 신에너지RIS사업단
다. 문의처 : 사업단 기업지원실 (☎ 062-530-1992, 담당자 민병준)
- 9. 기타사항**
지원업체의 선정은 내부지침에 따라 선정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009년 11월 09일

전남대학교 신 에너지 RIS 사업단장